

식민지 조선으로의 신사신도(神社神道)의 유입에 관한 일고찰

문혜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인류학 전공
shlove0315@hotmail.com

I. 머리말

II. 1915년까지 신사통제정책 확립기의 신사신도

III. 1916-1929년까지 국가제사 구축기의 신사신도

IV. 1930-1942년까지 황민화정책기의 신사신도

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의 신사신도¹⁾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 온 것은 부산 두모포왜관의 고토히라대신(金刀比羅大神)을 제사지내면서 부터이며, 공식적인 기록은 1678년 3월 부산 초량왜관으로 이전하면서 대마도 영주 소우 요시자네(宗義眞)가 한일 양국의 통상선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용두산 위에 석조의 작은 사당을 지어 고토히라대신(金刀比羅大神)을 제사지낸 것이다.²⁾ 이후 19세기 개항과 더불어 조선 내의 일본거류민이 증가하면서 신사도 증가하였다. 1915년 8월 16일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 (조선총독부령 제82호)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선 내의 일본 신사는 모두 일본거류민에 의해 창건된 거류민봉제신사(居留民奉齋神社)였으며, 이들 신사들은 일본 거류민들의 관습적인 종교적 의무의 수행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 및 민족 공동체의 종교적 기관을 통한 사회적 영적인 위안 추구의 역할을 하였다.³⁾ 즉, 일본의 신사신도는 조선시대 일본인 임시거류지인 왜관을 중심으로 진출했으며, 19세기 개항 이후 한일병합 초기의 한국에 창건된 신사는 일본 거류민 주도로 건립된 거류민봉제신사였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본 신사에 관한 연구는 동화(同化)이데올로기로서의 신사정책,⁵⁾ 신사의 장소와 공간적 체계모니⁶⁾와의 관계, 지역 신사의 개괄적 역사에 관한 연구⁷⁾ 등이 주류를 이루며 천황지배의

1) 신사신도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 정부의 법령에 의해 신도에 뿌리 둔 일본 신종교인 종파신도(宗派神道) 혹은 교파신도(教派神道)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전전에는 국가신도의 이칭으로 사용되었다(島蘭進, 『國家神道と日本人』(岩波新書, 2013), 79쪽).

2) 小山文雄, 『神社と朝鮮』(朝鮮佛教社, 1934), 124쪽; 日本電報通信社 編, 『神社大觀』(日本電報通信社, 1940), 777쪽.

3) 山口 公一, 「韓日併合以前における在韓日本人創建神社の性格について」, 『日韓相互認識』 제2호(2009), 38쪽. 한일병합 전후로 창건된 거류민봉제신사는 거류민유지가 황조신을 모셔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려는 목적 이외에도, 신사와 관련된 사적기도, 일생통과 의례, 세시풍속과 같은 일본거류민들의 민중 종교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이용되었다(문혜진, 「한일병합(1910년) 이전 남산대신궁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연구」, 『郷土서울』 제83호(2013a), 260-262쪽).

4)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吉川弘文館, 2005), 150-151쪽.

5) 김승태의 「일본 신도의 침투와 신사정책」(1986), 손정목의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 연구」(1987), 최석영의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1997), 김철수의 「『조선신궁』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검토」(2010) 등이 있다.

6) 김백영의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2009), 최진성의 「日帝強占期 朝鮮神社의 場所와 權力-全州神社를 事例로」(2006) 등이 있다.

정당화와 관련된 사례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신사는 일본의 민중 신앙에 기반한 거류민봉제신사부터 일본 황실의 제사기관인 관폐사(官幣社)·국폐사(國幣社)에 이르기까지 신사의 성격과 사격(社格)이 다양하며, 시기별·지역별로 신사신도의 진출양상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① 1915년 「신사사원규칙」이전의 거류민봉제신사의 창건, ② 1916년-1929년의 거류민봉제신사의 관공립화 및 국가제사시설의 완비, ③ 1930년대 이후 신사참배를 통한 황민화 정책기⁸⁾(1931-1942년⁹⁾)로 그 시기를 구별하여 한국으로의 신사신도의 진출양상을 그 제신의 특성과 함께 각 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대상으로는 재조일본인의 인구통계뿐만 아니라 시기별·지역별 신사신도의 통계를 살펴볼 수 있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이하 『통계연보』로 표기)를 중심으로 조선의 신사를 시기별로 잘 기록한 오야마 후미오(小山文雄)의 『신사와 조선(神社と朝鮮)』(1934), 이와시타 덴시로우(岩下傳四郎)의 『대륙신사대관(大陸神社大觀)』(1941) 및 그 외 『조선총독부관보』 등을 참조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로는 그 시기를 1678년부터 『통계연보』가 간행된 1942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하며, 지역은 『통계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남도·전라북도·남도·경상북도·남도·황해도·평안북도·남도·함경북도·남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신사신도의 시기별·지역별 진출양상 및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으로의 신사신도의 진출양상을 개괄적·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 7) 김대호의 『1910-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2003), 김대호의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2008), 김승의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2009), 안종철의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2011), 문혜진의 「한일병합(1910년) 이전 남산대신궁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연구」(1910)·「일제식민지기 경성부 신사: 신사 및 제신의 시기별 성격을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 8)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은 山口 公一의 박사논문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会』(2006)를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야마구치는 1910년대를 <국가제사의 정비과정>, 1920년대를 국민통합 수단으로서 <국민의례(신사참배)>의 등장 및 기독교와의 갈등이 대두된 시기, 1930년대 중반 이전을 <만주사변·농촌진흥운동기>로 국민의례가 부상된 시기, 1930년대 중반 이후를 <황민화 정책기>로 국가제사의 수행, 국민의례의 강요정책의 전개, 조선의 지역사회의 말단까지 <국민의례>의 장(場)의 설치기간으로 구분하였다.
- 9)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1942년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황민화정책기의 신사신도의 연구는 1931년부터 1942년까지로 한정한다.

II. 1915년까지 신사통제정책 확립기의 신사신도

1. 근세 조선의 신사신도

조선에서 최초로 신사가 창건된 곳은 임진왜란 이후 즉, 1547년 이후 일본인이 유일하게 체류하며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었던 부산의 왜관이 었다. 부산의 왜관은 절영도왜관(현 영도), 두모포왜관(현 수정동), 초량 왜관(현 초량동)이 있었으며, 절영도왜관은 1601년부터 1607년까지, 두모포왜관은 1607년부터 1678년까지, 초량왜관은 1678년 이후부터 한일병합 이전까지¹⁰⁾ 존속하였다. 조선에 최초로 창건된 신사에 대한 기록은 두모포 왜관 당시 대마 번주 소우씨(宗氏)에 의해 관내(館內)에 고토히라 신사를 건립하여 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를 진제(鎮祭)하여 해로의 안전을 기원한 것이다.¹¹⁾ 이후 연보(延寶) 6년(1678년) 3월 소우 요시자네(宗義眞)가 왜관을 두모포에서 오늘의 부산(초량왜관)으로 이전하면서(신사도) 이전되었다.¹²⁾ 초량 왜관으로 이전 당시 신사의 창건은 초량 왜관의 준공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용두산: 고토히라신사(金刀比羅神社), 경내(境內) 말사 이나리신사(稻荷神社)

경외(境外) 말사(末社) 벤자이텐(辯財天, 당시 宮島神社)

용미산: 가토우신사(加藤神社)

기타: 목도(牧島, 현 영도)에 조비나신사(朝比奈神社)¹³⁾

초량 왜관 준공도 기록은 용두산신사사무소(龍頭山神社事務所)에서 편찬한 『용두산신사사료(龍頭山神社史料)』(1936)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용두산신사사무소 기록에 따르면 1678년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할 당시 용두산에 고토히라신사, 벤자이신사(혹은 宮島神社), 이나리신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용미산의 경우 신화 상의 신공황후와 함께 정벌에 나선 다케시우치노스쿠네(武内宿禰)를 모신 타마다레신사(玉垂神社)가

10) 양홍숙, 「17세기 두모포왜관의 경관과 변화」, 『지역과 역사』 15권(2004), 166쪽.

11) 岩下傳四郎, 『大陸神社大觀』(大陸神道聯盟, 1941), 35쪽.

12)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11쪽.

13)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12쪽;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38쪽.

존재했으며 1819년 3월 기존의 타마다레신사에 임진왜란의 명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합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초량 왜관 준공도에는 초량왜관의 이전 당시 영도에 조비나신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용두산신사사무소 기록에는 1819년 5월 용미산에 조비나신사를 새로이 건립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⁴⁾

즉, 초량 왜관 준공도와 용두산신사사무소 기록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종합하여 정리하면, 1609년경 두모포 왜관에 바다를 관장하는 고토히라신사가 있었으며, 1678년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할 당시 고토히라신사를 같이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토히라신사의 말사로 이나리신사·벤자이텐신사가 있었고, 용미산에도 다케시우치노스쿠네 혹은 가토 기요마사를 모신 신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전자의 신사를 1899년 2월 용두산신사,¹⁵⁾ 후자의 신사를 1899년 7월 용미산신사로 개칭¹⁶⁾하게 된다.

대마도 번주 소우씨가 두모포와 초량 왜관에 신사를 창건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선에 최초로 창건된 고토히라신사는 대마 전도(全島)에 2사에 불과하며 소우씨에 의해 대마도에 창건된 대표적인 신사가 하치만신사(八幡神社)임을 감안해볼 때,¹⁷⁾ 고토히라신사는 소우씨의 우지가미(氏神)나 수호신을 권청하기 보다는 해상안전을 위한 민중신앙에 기반하여 창건된 것으로 사료된다. 벤자이텐은 에도시대에 칠복신앙을 받아들여 재물복덕의 신으로서 모셔지는 대마도의 이즈쿠시마신사(巖島神社)로부터 권청하였으며, 조비나신사는 대마도의 조비나신사로부터 분사(分社)하였다. 가토신사는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인질로 잡고 있던 조선의 왕자 두 명을 풀어준 은공으로 또는 천연두의 신으로서 왜관 내에 천연두를 방지하기 위해 모셔졌다는 설이 있다.¹⁸⁾

요컨대 조선에서 최초로 창건된 두모포 및 초량 왜관의 신사는 대마의 번주 소우씨에 의해 건립되었지만 해상안전과 질병 방지 등 민중 신앙에 기반한 신사나 왜관 내 거주민의 고향에서 권청해온 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에 형성된 국가제사적 성격의 국가신도(國家

14) 龍頭山神社事務所, 『龍頭山神社史料』(龍頭山神社事務所, 1936), 64-65쪽.

15) 日本電報通信社 編, 앞의 책(1940), 778쪽.

16) 龍頭山神社事務所, 앞의 책(1936), 77쪽.

17)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40쪽.

18)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05쪽-119쪽.

神道)와 구분되는 일본의 민중 신앙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1876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의 신사신도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이후부터 일본인들의 조선 이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일수호조규에는 일본인의 거류지 설정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1877년 1월 「부산항 거류지 차입약서(借入約書)」를 체결하여 과거 초량 왜관 지역인 11만평을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전환하는 데에 성공하여 개항장에 거류지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메이지(明治) 정부는 1877년 인천 개항을 희망하였지만 조선정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성사되지 못하고, 1880년에 원산 개항만이 허락되었다. 인천 개항은 임오군란 후인 1883년에 이루어졌으며, 서울에는 1885년 한성조약의 체결로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될 수 있게 되었다.¹⁹⁾

이와 같은 개항장의 일본 거류지의 확대는 일본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거류민봉제신사의 창건으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에 왜관이 소재한 부산에는 개항 당시 이미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가 존재하였고, 개항 이후 점진적으로 원산·인천·서울(경성)에 신사가 창건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 축탁으로 다년간 신사 행정에 관여한 오야마(小山文雄)와 신직 이와시타(岩下傳四郎)의 문헌을 통해 거류민봉제신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산신사(元山神社)는 원산항의 개항 후 2년 만인 1882년 신풍(神風)의 이세(伊勢)로부터 황태신(皇太神)의 신예(神禰)를 권청하고 거류민에 의해 아마테라스대신(天照皇大神)을 봉제하는 신사(神祠)로 건립되었다. 인천신사(仁川神社)는 인천항의 개항 후 7년 만인 1890년 일본거류민에 의해 아마테라스대신을 제사지내는 신사(神祠)로 창건되었다. 경성신사(京城神社)는 청일전쟁 후 한성조약이 체결된 지 13년만인 1898년 조선의 수도 한성에 이세로부터 황태신궁(皇太神宮)의 신예를 맞이하여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이라는 명칭으로 창건되었다.²⁰⁾

청일전쟁 후 개항장은 재차 확대되었는데, 1897년 목포와 진남포가

19) 천지명, 「재한일본인 거류민단(1906-1914)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쪽.

20)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21쪽;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43-44쪽.

잡정합동조판에 따라 개방되었고, 1899년 마산·평양·군산·성진, 1904년 의주가 개방되면서 일본인들의 거주지도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²¹⁾ 이에 일본 신사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1900년에 평안남도 진남포에 거류민에 의해 아마테라스대신을 봉제한 소사(小祠) 진남포신사(鎭南浦神社)가, 1902년 전라북도의 군산항에 거류민 및 어업자의 협력에 의해 고토히라신을 진제한 군산신사(群山神社)가 창건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중에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岩浦)의 육군점령지내에 용천신사(龍川神社)가 창건되었으며, 러일전쟁 후인 1906년 11월 경상북도 대구거류민단에 의해 아마테라스의 요배소가 창건되었다. 이후 일본거류민단에 의해 아마테라스 대신을 봉제한 신사가 1907년 충청남도 대전부에 대전신사(大田神社)·경상남도 밀양군 밀양 하동면 삼랑진리(三浪津里)에 삼랑진신사(三浪津神社), 1908년 충청남도 논산 강경읍에 강경신사(江景神社), 1909년 함경북도 성진항에 성진신사(城津神社)·경상남도 마산항에 마산신사(馬山神社), 1910년 전라남도 목포항에 송도신사(松島神社)가 창건되었다. 즉, 한일병합 이전 대구와 삼랑진에 2개의 요배소, 그 외의 지역에 11개의 신사가 창건되어,²²⁾ 부산 왜관 시대에 창건된 용두산·용미산신사를 제외하고 총 13사가 새롭게 창건되었다. 그리고 한일병합 전후로 창건된 거류민봉제신사는 개항지의 항구를 중심으로 일본거류지가 형성된 곳에 지역별 최초의 신사가 창건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한일병합 이후로는 1912년 일본거류민단이 창건한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로 평안북도 신의주부에 평안신사(平安神社)·전라북도 익산군에 대양신사(大陽神社)·전라남도 광주부에 광주신사(光州神社)·평안북도 의주군에 의주신사(義州神社)가 창건되었다. 1913년 일본거류민단이 창건한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로 전라북도 익산군 이리읍에 이리신사(裡里神社)·전라북도 장성군에 동산신사(東山神社)·평안남도 평양부에 평양신사(平壤神社)·강원도 춘천군에 강원신사(江原神社)가 있었다. 1914년에는 전라북도 전주부에 일본 거류민단이 아마테라스를 모신 전주신사(全州神社)를 창건하였다. 1915년에는 일본거류민단이 창건한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로 충청남도 천안부에 천안신사(天安神社)·전라북도 군산부에

21) 천지명, 앞의 논문(2013), 18쪽.

22)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22-123쪽;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43-45쪽.

군산신사(群山神社)·경상남도 진주부에 진주신사(晋州神社)·경상남도 밀양군에 밀양신사(密陽神社)가 창건되었다.²³⁾

한편 『통계연보』에는 1910년·1911년·1912년 「내지인설립신사(內地人設立神社)」 표에 각 도별 창건신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1915년 이후로는 각 도별 신사의 수만 기재되어 있다. 1910년부터 1916년 까지 『통계연보』에 기재된 각 도별 신사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의 신사 수는 조선의 신사에 대해 구체적인 문헌을 남긴 오야마나 이와시타의 기록과 차이가 난다. 즉, 오야마와 이와시타는 1910년까지

표1-한일병합 전후 『통계연보』에 기재된 신사²⁴⁾

연도	신사 수	신사명(지역)
1910	31	神籬신궁 ²⁵⁾ (경기도 경성), 인천皇太神宮(경기도 인천), 菅原神社(同), 天照皇太神宮(충북 보은), 江景太神宮(충남 은진군), 金刀比羅神社(전북 군산부), 金刀比羅神社(전남 목포부), 太神宮遙拜所(경북 대구부), 金刀比羅神社(경남 밀양군 금양면), 太神宮(경남 밀양군 부내면), 稻荷神社(同), 龍頭山神社(경남 부산부 금평정), 龍尾山神社(경남 부산부 본정), 太神宮(경남 미산부), 金刀比羅神社(경남 거제군), 稻荷神社(황해도 황주군), 太神宮(평남 진남포부), 太神宮(평북 선천군), 龍川神社(평북 용천군), 琴平神社 ²⁶⁾ (강원도 울진군), 天照皇太神宮(함남 원산부), 琴平神社(同), 男山八幡宮(함남 갑산군), 稻荷神社(함북 청진부), 住吉神社(함북 청진부 北星町), 金刀比羅神社(함북 청진부 어시장지 정지), 琴平神社(함북 성진군), 太神宮(함북 경성군 나남 길아정), 金刀比羅神社(함북 경성군 나남 춘일정), 稻荷神社(함북 경성군 나남 생구정), 太神宮(함북 경흥군)
1911	56	太神宮(경기도 경성), 天理教龍山宣敎所(경기도 경성 용산), 인천皇太神宮(경기도 인천), 菅原神社(同), 氏神社(경기도 영등포)(1906), 太神宮(충북 보은), 太神宮(충남 공주), 招魂社(同), 太神宮(충남 은진군), 金刀比羅神社(충남 어청도)(1905), 太神宮(충남 조치원)(1908), 金刀比羅神社(전북 군산부), 松島神社(전남 목포부), 金刀比羅神社(同), 天理教布敎所(경북 대구), 稻荷神社(경북 상주), 金刀比羅神社(경남 거제군), 岡山神社(경남 용남군), 馬山神社(경남 미산부), 惠美須神社(同)(1906), 龍頭山神社(경남 부산부 금평정), 龍尾山神社(경남 부산부 본정), 水産神社(경남 부산부 남빈정)(1903), 蛭子神社(경남 부산부 절영도)(1906), 金刀比羅神社(경남 밀양군 금양면), 太神宮(경남 밀양군 부내면), 稻荷神社(同), 新幕神社(황해도 서흥군)(1907), 汗浦神社(황해도

23)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22-123쪽;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47-48쪽.

24) 1910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第427表 「內地人設立神社」; 1911년 『통계연보』 第591表 「內地人設立神社」; 1912년 『통계연보』 第552表 「內地人設立神社」; 1915 『통계연보』 第469表 「內地人布敎狀況」; 1916 『통계연보』 第473表 「神社及寺院」.

		<p>평산군 금암면), 稻荷神社(황해도 황주군), 南川神社(황해도 평산군 보상면), 天理敎宣敎所(평남 평양부), 太神宮(평남 진남포부), 金光敎(평양 평양부), 平安神社(평북 의주부), 太神宮(평북 선천군), 龍川神社(평북 용천군), 金刀比羅神社(평북 가산군), 男山八幡宮(평북 강계), 金刀比羅神社(강원도 울진군), 金刀比羅神社(함남 원산), 元山神社(同), 男山八幡神社(함남 혜산진), 男山八幡宮(함남 삼수군), 太神宮(함북 경성군 나남 길아정), 稻荷神社(함북 경성군 나남 생구정), 金刀比羅神社(함북 경성군 나남 립치정)(1909), 稻荷神社(함북 경성군 삼문리)(1908), 八幡宮(함북 경성군 나남 길아정)(1908), 太神宮(함북 경성군 나남 비도동)(1908), 雄基神社(함북 경흥군 해안), 稻荷神社(함북 청진부), 住吉神社(함북 청진부 北星町), 金刀比羅神社(함북 청진부 어시장지정지), 太神宮(함북 경흥군), 金刀比羅神社(함북 성진군)</p>
1912	60	<p>太神宮(경기도 경성), 인천皇太神宮(경기도 인천), 菅原神社(同), 氏神社(경기도 영등포), 太神宮(충북 보은), 太神宮(충북 청주), 太神宮(충북 남변면), 太神宮(충남 공주), 招魂社(同), 太神宮(충남 은진군), 金刀比羅神社(충남 어청도), 太神宮(충남 조치원), 金刀比羅神社(전북 군산부), 大場村神社(전북 익산), 松島神社(전남 목포부), 金刀比羅神社(同), 稻荷神社(同), 金刀比羅神社(경남 거제군), 岡山神社(경남 용남군), 馬山神社(경남 마산부), 惠美須神社(同), 龍頭山神社(경남 부산부 금평정), 龍尾山神社(경남 부산부 본정), 水産神社(경남 부산부 남빈정), 蛭子神社(경남 부산부 절영도), 金刀比羅神社(경남 밀양군 금양면), 太神宮(경남 밀양군 부내면), 稻荷神社(同), 新幕神社(황해도 서흥군), 汗浦神社(황해도 평산군 금암면), 稻荷神社(황해도 황주군), 南川神社(황해도 평산군 보상면), 金刀比羅神宮(황해도 장연군), 平壤神社(평남 평양), 太神宮(평남 진남포부), 平安神社(평북 신의주), 太神宮(평북 의주), 龍岩神社(평북 용천군), 太神宮(평북 선천군), 金刀比羅神社(평북 가산군), 男山八幡宮(평북 강계), 太神宮(강원도 춘천), 太神宮(강원도 철원), 金刀比羅神社(강원도 울진군), 金刀比羅神社(함남 원산), 元山神社(同), 男山八幡神社(함남 혜산진), 男山八幡宮(함남 삼수군), 太神宮(함북 경성군 나남 길아정), 稻荷神社(함북 경성군 나남 생구정), 金刀比羅神社(함북 경성군 나남 립치정), 稻荷神社(함북 경성군 삼문리), 八幡宮(함북 경성군 나남 길아정), 太神宮(함북 경성군 나남 비도동), 雄基神社(함북 경흥군 해안), 稻荷神社(함북 청진부), 住吉神社(함북 청진부 北星町), 金刀比羅神社(함북 청진부 어시장지정지), 太神宮(함북 경흥군), 金刀比羅神社(함북 성진군)</p>
		<p>경기도 4, 충북 3, 충남 5, 전북 2, 전남 3, 경남 11, 황해도 5, 평남 2, 평북 6, 강원도 3, 함남 4, 함북 12</p>
1915	58	<p>경기도 17, 충북 1, 충남 3, 전북 2, 전남 3, 경북 3, 경남 17, 황해도 -, 평남 8, 평북 -, 강원도 -, 함남 3, 함북 1</p>
1916	17	<p>경기도 4, 충남 0, 전북 3, 전남 1, 경북 1, 경남 3, 평남 2, 평북 1, 함남 2, 함북 0</p>

25) 1910년 『통계연보』에만 신리신궁이라 표기되어 있고, 1911년 이후부터는 남산대신궁을 나타내는 태신궁(太神宮)으로 표기되어 있다.

26) 고토히라신사(琴平神社)는 고토히라신사(金刀比羅神社)의 다른 표기이다.

조선에 총 13사가 창건되었다고 기록한 것에 반해, 『통계연보』에는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를 제외하고 총 29사가 창건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오야마와 이와시타가 각각 1934년, 1941년 책을 간행하면서 1910년 당시 신사(神祠)라고도 볼 수 없는 소사(小祠)나 인친신사의 섭사로 들어간 스기와라신사(菅原神社)·밀양신사의 섭사로 들어간 고토히라신사 등 아마테라스를 모신 대신궁의 섭사로 들어간 신사들을 기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위 표1을 보면, 각 연도별 증설된 신사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는데, 기존 통계에서 누락된 신사와 구별하기 위해 증설이 아니라 새롭게 집계된 신사의 경우 괄호로 창건연도를 표기하였다. 1911년의 경우, 새롭게 집계된 신사는 11사이며, 증설된 신사는 16사이다. 증설된 신사 중 천리교포교소, 천리교선교소, 금광교 등의 교파신도²⁷⁾가 혼재되어 있어, 신사신도와 교파신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12년에는 5사가 증설되어 신사의 증설이 다소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1913년과 1914년 『통계연보』에는 각 도별 신사의 수가 아닌 각 도별 신도(神道)의 회당(會堂)·강의소(講義所)·설교소(說敎所)·포교소(布敎所)가 항목별로 집산되어 있는데, 이는 신사신도의 신사와 교파신도의 포교소가 같이 집계된 것으로 신사신도의 증설상황을 알 수 없다.

1915년에는 1912년에 비해 신사의 수가 2사 감소되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각 17사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신사의 창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15년 『통계연보』 제29표 「현주호구지방별(現住戶口地方別)」의 도별 일본거류민 인구수와 비교할 때, 경기도가 재조일본인 총 인구 303,659명 중 87,309명으로 29%, 경상남도가 63,162명으로 21%로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재조일본인의 50%가 집중되어 있었다. 즉,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일본 거류민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신사의

27) 에도(江戸) 막부말기부터 농상공인들 사이에서 강신 체험을 토대로 현세구복적인 경향을 가진 민간신앙들이 나타났다. 신도수성교(神道修成派), 흑주교(黑住敎), 신도계교(神道敎), 대사교(大社敎), 천리교(天理敎), 금광교(金光敎), 부상교(扶桑敎), 신습교(神習敎), 대성교(大成敎), 어악교(御嶽敎), 실행교(實行敎), 신리교(神理敎), 신도본국(神道本局) 13파의 종교단체들이 그것이다. 이들 종교단체들은 메이지정부가 신도국교화(神道國敎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교의(敎義)를 황조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조상숭배적 국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담긴 교의로 바꾸어 교파신도로 승인받았으며, 종교로서 조선 등 해외로의 포교를 허용받았다(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로서의 창출』(서경문화사, 1997), 86-90쪽; 村上重良, 『国家神道と民衆宗教』(吉川弘文館, 2006), 84쪽)

창건 비중이 높은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거류지에 인구가 증가할수록 거류민봉제신사의 창건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5년까지 거류민봉제신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1912년 『통계연보』에 나타난 각 도별 신사의 제신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단, 1915년 『통계연보』에 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912년보다 1915년에 신사의 수가 2사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창건된 신사의 수나 종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가정하여 1912년 『통계연보』의 신사의 제신을 참조하고자 한다.

표2-1912년 조선의 각 도별(道別) 창건된 제신의 종류와 수

지역	제신(祭神)	제신의 수
경기도	아미테라스대신(天照大神)	2
	스가와라노 미치지네(菅原道眞)	1
	우지코가미(氏神)	1
충청북도	아미테라스	3
충청남도	아미테라스	3
	호국영령(護國英靈)	1
	고토히라대신(金刀比羅大神)	1
전라북도	고토히라	1
	아미테라스	1
전라남도	아미테라스	1
	고토히라	1
	이나리신(稻荷神)	1
경상남도	고토히라	4
	아미테라스	2
	에비스신(惠美須神)	2
	다케시우치노스쿠네 혹은 가토 기요마사	1
	이나리신	1
	오쿠아마신(岡山神)	1
황해도	아미테라스	3
	이나리신	1
	고토히라	1
평안남도	아미테라스	2
평안북도	아미테라스	4
	고토히라	1
	하치만신(八幡神)	1
강원도	아미테라스	2
	고토히라	1

함경남도	아마테라스	1
	고토히라	1
	하치만신	2
함경북도	고토히라	3
	아마테라스	4
	이나리신	3
	스미요시신(住吉神) ²⁸⁾	1
	하치만신	1
합계	아마테라스(28), 고토히라(14), 이나리신(6), 하치만신(4), 에비스신(2), 지역 수호신 (氏神/岡山神)(2), 스키와라(1), 호국영령(1), 다케시우치노스쿠네 혹은 가토 기요마사(1), 스미요시신(1)	60

위 표2의 한일병합 전후의 거류민봉제신사에 봉제된 제신의 봉제 순을 보면, 1912년 총 60사 60주(柱)의 제신 중 황조신 아마테라스가 28주로 약 47%, 바다를 관장하는 고토히라대신이 14주로 약 23%, 농촌에서는 농업·도시에서는 상업을 관장하는 이나리신이 6주로 10%, 무신(武神)인 하치만신은 4주로 약 7%를 차지하였다. 그 외 상업을 관장하는 에비스신과 고향에서 권청해온 지역 수호신이 각 2주로 각 3%, 학문의 신 스키와라가 1주·군인이 죽어서 신이 된 호국영령이 1주, 조선침략과 관련 있는 다케시우치노스쿠네(신화 상의 신공왕후 삼한정벌) 혹은 가토 기요마사(임진왜란의 명장)가 1주, 바다를 관장하는 스미요시가 1주로 각 2%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고토히라대신은 주로 해안의 산 위에 제사지내며, 스미요시대신은 해안의 곳(岬)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통례(通例)로 한다.²⁹⁾

한일병합 전후로 창건된 거류민봉제신사는 크게 일본거류민 유지들이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고양시켜 재조일본인사회의 일체성을 도모하기 위해 천황·황족을 봉제한 신사³⁰⁾와 고향의 수호신이나 민중생활관련

28) 이자나기노미코토(伊弉諾尊)의 자식(御子) 우와즈츠노오노미코토(表筒男命), 나카즈츠노오노미코토(中筒男命), 소코즈츠노오노미코토(底筒男命)는 신공왕후 삼한정벌 때, 영험력이 두드러지고 신령스러워 닌토쿠천황(仁德天皇) 섭진(攝津)의 스미요시(住吉)에게 이들을 제사지내게 했기 때문에 스미요시 삼신(住吉三神)이라고 하며, 스미노니(黑之江)의 미사키가미(御前神)라고도 칭해 제사지낸다(小山文雄, 앞의 책(1934), 90쪽).

29) 小山文雄, 앞의 책(1934), 111쪽.

30) 山口 公一, 앞의 논문(2009), 38쪽.

인기 있는 수호신을 권청(勸請)해온 민중 종교적 신사로 나눌 수 있다.³¹⁾ 위 표2에 따르면, 1912년까지 조선의 각 도에는 일본거류민들의 내셔널리즘을 고양시켜 일체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황조신 아마테라스신을 봉제한 신사가 약 47%로, 개별적으로 모셔진 제신 중에서는 가장 많이 모셔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업의 고토히라신사와 스미요시신사·농업의 이나리신사·상업의 에비스 신사와 같이 생업과 연계되며 일본의 민중에게 인기 있는 신사의 신들이 조선의 신사 중 약 38%, 고향에서 권청해온 지역 수호신이 6%로 총 44% 봉제되어,³²⁾ 합일병합 전후로 고향의 수호신이나 민중생활관련 인기 있는 수호신들을 조선의 각 지역에 권청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신으로 국력과 관련이 있는 하치만신은 청일전쟁·러일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평안남도·함경도 등의 북쪽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1916-1929년까지 국가제사 구축기의 신사신도

1915년까지 일본 신사는 조선의 개항지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지가 확장하는 곳마다 재조일본인의 주도로 그들의 종교적 필요에 의해 창건되었다. 반면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민(民)의 필요에 의해 창건된 신사들을 관(官)이 정비·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만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 신사행정은 우선 조선에 창건된 거류민봉제신사를 관·공립화³³⁾하여 통제 하에 넣고, 천황지배의 정당화를 위해 신사신도를 천황의 국가제사로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15년 「신사사원규칙」을 포고(布告)하여 기존의 거류민봉제신사의 인·허가권을 장악해 거류민봉제신사들을 정비·통제하기 시작했으며, 1925년 조선신궁의 완공으로 국가제사 시설을 완비하였다.

31) 문혜진, 앞의 논문(2013b), 375쪽.

32) 오야마는 식민지조선에 창건된 민중 신앙적 신사들 중, 난즈쿠이나리신사(就中稻荷神祠)가 가장 많았으며, 스이텐신사(水天神祠), 야마신사(山神祠), 아타고사(愛宕祠), 고토히라신사(金刀比羅神祠), 에비스사(惠比壽祠) 등도 비교적 많이 창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小山文雄, 앞의 책(1934), 141쪽).

33) 김승태, 「일본 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神社問題」, 『한국사론』 16(1987), 294쪽.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사(神社)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창립에 필요한 숭경자총대(崇敬者總代)를 3명 이상 선출하고, 숭경자(崇敬者) 수는 30인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또한 신사(神社)에 신직을 두어야 했으며, 신전 및 배전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였다.³⁴⁾ 이로 인해 그동안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만들어졌던 신사(神社)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조선총독에게 인허를 받아야 했다. 이는 신사의 남발을 방지하여 ‘국가의 종사(宗祀)’인 신사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신사의 운용조직인 우지코(氏子)조직을 두어 이를 운영하려는 것이었다.

위 표1을 보면, 1915년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되면서 1915년의 신사가 58사에서 1916년의 신사가 17사로 급감하였다. 1년 사이에 41사가 감소한 이유로는 대다수의 거류민봉제신사가 신사(神社)로서의 요건 미비로 허가를 받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봉제한 대신궁이 창건된 거류지에 소재한 텐만궁(天滿宮)·고토히라신사 등 민중에 인기 있는 신사들이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된 이후 인허가를 받은 대신궁의 섭사(攝社)로 들어가면서³⁵⁾ 신사(神社)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된 이후부터 1929년까지 창건된 신사를 이와시타의 문헌을 통해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1916-1929년까지 창건된 신사³⁶⁾

창립 연도	신사명	제신	소재지
1916	개성신사	아마테라스	경기도 개성부
	미즈호신사 (瑞穂神社)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옥강군
	통영신사	아마테라스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읍
	대장신사 (大場神社)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진해신사	아마테라스 도요우케 (豊受大神)	경상남도 창원군

34) 조선총독부령 제82호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1915. 8. 16)

35) 山口公一, 앞의 논문(2006), 40쪽.

36)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45-50쪽.

	함흥신사	아마테라스	함경남도 함흥부
	밀양신사	아마테라스 하치만신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읍
	전주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전주부
1917	광주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남도 광주부
	진주신사	메이지천황 (明治天皇)	경상남도 진주부
	청진신사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	함경북도 청진부
	동산신사 (東山神社)	메이지천황 쇼켄황태후 (昭憲皇太后)	전라남도 장성군
	의주신사	아마테라스	평안북도 의주군
	강경신사	아마테라스	충남 논산군 강경읍
	수원신사	아마테라스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이리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익산군 이리읍
	1918	강원신사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 스사노오 (素盞烏尊)
해주신사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 스사노오	황해도 해주부
1919	회령신사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1920	태인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
1921	나남신사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	함경북도 나남읍
1922	청주신사	아마테라스	충청북도 청주읍
1923	포항신사	아마테라스 오모노누시 (大物主神) 우카노미타마 (倉稻魂神)	경상북도 포항읍
	검이포신사	아마테라스	황해도 검이포읍
1924	김제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김제읍
1925	조촌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북도 원주군 조촌면
	조선신궁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	경기도 경성부
1926	공주신사	아마테라스	충청남도 공주읍

1928	강계신사	쓰쿠요미 (月讀命)	평안북도 강계읍
	김천신사	아마테라스 도요우케	경상북도 김천읍
	천안신사	아마테라스	충청남도 천안읍
	성환신사	아마테라스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면
1929	영산포신사	아마테라스	전라남도 영산포읍
	울도신사	아마테라스 오쿠니누시 (大國主命) 고토시로누시 (事代主命)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위 표3을 보면,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된 이후 창건된 신사의 특징은 민중 신앙에 기반한 신사의 창건이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1916년부터 1929년까지 창건된 신사 총 34사 중 아마테라스를 주신(主神)으로 봉제한 신사는 31사로 91%, 조선을 강제 합병한 메이지천황을 주신으로 봉제한 신사는 2사로 6%, 아마테라스의 동생 쓰쿠요미를 주신으로 봉제한 신사는 1사로 3%를 차지하였다. 즉, 1916년 이후 창건된 신사는 황조신을 봉제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며, 황조신이 아닌 경우 메이지 천황이나 쓰쿠요미와 같이 황실 조상신이 봉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³⁷⁾

반면, 신사(神祠)는 신사(神社)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간소히 신사(神社)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17년 3월 22일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공포된 「신사에 관한 건(神祠に關する件)」에 따르면, 신사(神祠)라고 칭하는 것은 신사(神社)가 아니며 공중(公衆)에 참배시키기 위해 신사(神祠)를 봉합사(奉合祀)하는 것을 말한다. 신사(神祠)를 설립하려면 승경자가 될 만한 10인 이상이 연서(連署)해야만 하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신사(神祠)는 신사(神社)에 비하여 제반의 설비를 간단하게 하여 지방주민의 사정에 따라 일반 신사(神社)의 형식을 구비한 신사(神

37) 아마테라스와 함께 이세신궁에 봉제된 도요우케는 곡물의 신으로 이세신궁에서 아마테라스의 음식을 담당하는 외궁의 신이며, 그 외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오쿠니누시와 고토시로누시(事代主命)는 스사노오의 자손으로 1916년부터 1929년까지 창건된 신사의 제신이 대부분 황실 조상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포항신사의 우카노미타마만 이나리신사의 신으로, 포항신사의 경우 이나리신사로 창건되었지만 이후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로 개축하면서 이나리신을 아마테라스에 합사한 것으로 유추된다.

社)를 창립하기 어려운 곳에 한해서 그 지방주민에게 경신(敬神)상 만족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든 것이다. 신사(神祠)의 칭호는 될 수 있는 한 제신과 신명(神名)이 부합하는 보통명사를 선택해야 했으며(예를 들어 아미테라스를 제신으로 할 경우는 神明神祠라고 함), 담당 신직을 정해 제사를 위탁하도록 했다.³⁸⁾

이와 같이 신사(神社)는 1915년 8월 16일 이후, 신사(神祠)는 1917년 3월 22일 이후 자발적으로 민간에 의해 창설되던 것이 총독부의 허가 및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연보』에는 1917년 이후부터 신사(神社)와 신사(神祠)가 구분되어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다. 1916년부터 1929년까지의 지역별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증설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916년 『통계연보』, 신사(神社)와 신사(神祠)의 수가 나뉘어 집계된 1917년 『통계연보』, 1929년 『통계연보』를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1916년·1917년·1929년의 지역별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증설현황³⁹⁾

지역	1916년	1917년		1929년		합계
	신사(神祠)	신사(神祠)	신사(神祠)	신사(神社)	신사(神祠)	
경기도	4	4	3	4	17	32
충청북도	-	-	-	1	13	14
충청남도	-	2	1	6	20	29
전라북도	3	5	-	8	10	26
전라남도	1	3	-	4	12	20
경상북도	1	1	2	4	26	34
경상남도	3	6	2	7	22	40
황해도	-	-	1	2	8	11
평안남도	2	2	1	2	2	9
평안북도	1	3	-	4	18	26
강원도	-	-	1	1	14	16
함경남도	2	3	-	2	8	15
함경북도	-	2	-	4	7	13
합계	17	31	11	49	177	285

38)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공포된 「신사에 관한 건(神祠に關する件)」(1917. 3. 22).

39) 1916년 『통계연보』 473표 「신사급사원(神社及寺院)」 중 신사 및 신직(神社及神職)의 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917년 『통계연보』 465표 「사사급교회(社寺及教會)」 중 '신사 및 신직(神社及神職)'의 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위의 표4의 1916년부터 1929년까지 도별 신사의 증설 현황을 살펴보면, 신사(神社)와 신사(神祠)가 가장 많이 창건된 지역으로는 경상북도가 30사, 경상남도가 29사, 충청남도가 26사, 평안북도가 22사, 경기도가 21사, 전라북도가 18사, 전라남도가 16사, 강원도가 15사, 충청북도가 14사, 함경북도가 11사, 함경남도·황해도가 10사, 평안남도가 4사 순으로 1929년까지 경상도에 가장 많은 신사(神社)와 신사(神祠)가 창건되었다. 또한 신사(神社)는 1916년 대비 1929년 충청남도가 6사, 전라북도가 5사, 경상남도·평안북도가 4사 순으로 증설되었으며, 신사(神祠)는 1917년 대비 1929년 경상북도가 24사, 경상남도가 20사, 평안북도가 18사 순으로 증설되었다. 즉, 신사(神社)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신사(神祠)는 경상도가 가장 많이 증설되었다.

이를 1929년 『통계연보』 제24표 「현주호구(現住戶口)」의 지역별 거류민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재조일본인 인구 총 488,478명 중 경기도가 121,233명(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80,824명(17%), 경상북도가 47,498명(10%), 평안남도 40,552명(8%) 순이었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와 신사(神社)수 간의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재조일본인 수와 신사창건률이 비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이주 초기 신사(神社)의 필요성에 의해 신사(神社)를 창건하기에 일정한 자금을 모집할 인구의 증가는 신사(神社)의 창건으로 이어졌지만, 일단 그 지역에 필요한 신사(神社)가 창건된 이후 인구의 증가와 신사(神社)의 증설은 거류민·지역·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사(神祠)의 경우 신사(神社)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건된 작은 사당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24사, 20사가 창건되며 가장 많이 증설되었다. 1917년부터 1929년까지 경상도에 가장 많은 신사(神祠)가 창건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관보』의 신사설립허가(神祠設立許可) 부문을 참조하면, 신사(神祠)의 설치 신청자는 1928년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면에 신메이신사(神明神祠) 설립을 신청한 박연한(朴莪漢)을 제외하고 전부 일본인이었다. 신청자의 직업은 박연한의 경우 상주면장이었으며, 그 외 일본인의 경우 금융업이나 상업을 하는 지역유지가 가장 많았으며, 우편소장 3명, 학교조합관리자 1명 순이었다. 일본인 신청 대표자로 회사 경영자에 이어 우편소장이 많은 이유로, 조선에서 우편소장이라는 직위는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었고 이들 일본인

들은 주조업이나 운수업의 간부도 겸임하는 등 지역의 유력자로 자리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⁰⁾ 즉, 1917년부터 1929년까지 신사(神祠)가 가장 많이 창건된 경상도의 사례를 통해, 1920년대까지 신사(神祠)는 각 면의 신사(神祠) 창건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일본인 유지에 의해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7년부터 1928년까지 경상도의 신사(神祠)의 지역별 증설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929년까지 신사(神社)가 창건된 지역과 1917년부터 1929년까지 신사(神祠)가 창건된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1929년까지 경상도 지역별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분포도

연도 창건지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1929년 이전까지신사(神祠)가 창건된 지역	대구부, 상주군	부산부(금평정·본정·남빈정·절영도), 마산부, 진주부, 거제군, 용남군, 통영군, 창원군(창원면), 밀양군(금양면·부내면), 포항읍, 김천읍, 울릉도
1917년부터 1929년까지 신사(神祠)가 창건된 지역	청도군, 경산군, 경주군, 안동군, 문경군, 영덕군, 봉화군, 달성군	하동군, 고성군, 김해군, 울산군, 영일군, 사천군, 동래군, 남해군, 밀양군(하남면), 창원군(태남면, 진동면)

위 표5에 따르면, 경상도의 신사(神祠)는 기존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신사(神社)가 창건되지 않은 군·읍을 중심으로 창건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경상남도 밀양군과 창원군의 경우 기존의 신사(神社)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神祠)가 창건되었는데 밀양군의 경우 금양면·부내면에 이어 하남면에 신사가 창건되었으며, 창원군의 경우 창원면에 이어 태남면·진동면에 신사가 창건되었다. 즉, 경상도의 경우 신사(神祠)는 일본인 지역 유지에 의해 1920년대 문화정책기에 신사 창건에 대한 강제정책이 없었던 측면에서 일본인 지역 사회의 신사(神祠)의 필요성에서 기존의 신사(神社)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창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요컨대 1915년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된 이후 기존의 일본 거주민에 의해 창건된 신사(神社)는 국가제사 기관으로서의 황실조상신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며 국가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시설로 정비되었으며, 신사(神

40) 히우라 사토코, 이연숙 옮김, 『신사·학교·식민지: 지배를 위한 종교·교육』(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223쪽.

祠)의 경우 1917년부터 신사(神社)가 부재한 지역의 일본인 지역 유지들에 의해 창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1925년 조선의 총진수(總鎭守) 관폐대사 조선신궁이 완공되어 황실제사로 재편된 신사제사를⁴¹⁾ 거행할 수 있는 국가제사 공간을 완비하여 식민정권의 국가제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IV. 1930-1942년까지 황민화정책기의 신사신도

1930년대 이후의 일제의 신사정책은 ‘황민화’ 정책의 실시기로 볼 수 있다.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조선이 중일전쟁의 지원을 위한 후방이 되면서, 총독부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물적·인적·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일제는 조선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1936년 8월 5일 새로 부임한 미나미(南次郎) 총독은 신사제도의 정비 및 확대를 통해 내선일체에 기반한 황민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1936년 8월 1일 「신사제도 개정」에 대한 칙령을 통해 ‘일도일열격사(一道一列格社)’·‘일읍면일신사(一邑面一神祠)’를 공포·설치하여, 식민정권의 제사 지원을 받는 국폐소사(國幣小社)를 지정하고, 동년 8월 11일 도부읍면(道府邑面)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公進)⁴²⁾을 받는 도공진사(道供進社), 부공진사(府供進社)를 지정한 것이다.⁴³⁾ 그 결과, 1936년 경성신사와 부산의 용두산신사를 필두로 1937년 대구신사와 평양신사가, 1941년 광주신사와 강원신사가, 1944년 함흥신사와 전주신사가 국폐소사로 승격되었다.⁴⁴⁾ 각 도별 국폐소사·도공진사·부공진사·읍공진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6과 같다.

41) 황실제사의 신사제사로의 재편에 대해서는 문혜진, 「1910-1925년 경성신사의 제사」, 『종교연구』 72집(2013)을 참조할 것.

42) 관폐사는 제례 시 황실(궁내성)에서 신찬폐백료를 공진받는 신사이며, 국폐소사는 국고에서, 도공진사·부공진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폐백료를 공진받았다.

43)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告示第434號, 1936. 8. 1.;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告示第440號, 1936. 8. 11.

44) 문혜진, 「식민지 조선의 국폐소사(國幣小社)에 관한 일고찰: 국폐소사의 운영 및 제의 양상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5(2016), 161-162쪽.

표6- 일제식민지기 각 도의 신사의 승격표⁴⁵⁾

행정구역	관국폐사	도부읍면공진사
경기도	관폐대사 - 조선신궁 국폐소사 - 경성신사	도공진사 - 인천신사 부공진사 - 개성신사 읍공진사 - 수원신사
강원도	국폐소사 - 강원신사	.
충청도	충청북도	도공진사 - 청주신사 읍공진사 - 충주신사
	충청남도	관폐대사 - 부여신궁 도공진신사 - 대전신사 읍공진사 - 공주신사 읍공진사 - 강경신사 읍공진사 - 연기신사
전라도	전라북도	국폐소사 - 전주신사 부공진사 - 군산신사 읍공진사 - 이리신사 읍공진사 - 김제신사 읍공진사 - 정읍신사 읍공진사 - 남원신사
	전라남도	국폐소사 - 광주신사 부공진사 - 송도신사 읍공진사 - 순천신사 읍공진사 - 나주신사
경상도	경상북도	국폐소사 - 대구신사 도공진사 - 김천신사 읍공진사 - 포항신사
	경상남도	국폐소사 - 용두산신사 도공진사 - 진주신사 부공진사 - 마산신사 읍공진사 - 통영신사 읍공진사 - 진해신사
황해도	.	도공진사 - 해주신사
평안도	평안북도	.
	평안남도	국폐소사 - 평양신사 도공진사 - 신의주신사 부공진사 - 진남포신사
함경도	함경북도	.
	함경남도	국폐소사 - 함흥신사 도공진사 - 나남신사 부공진사 - 청진신사 읍공진사 - 회령신사 읍공진사 - 성진신사 부공진사 - 원산신사

위 표6에 나타나듯이, '일도일열격사의 설치 방침'을 통해 조선 팔도의 대표적인 신사가 국가지원을 받는 국폐사, 도·부·읍의 지원을 받는 공진사로 승격됨으로써 관폐대사 조선신궁을 위시한 국폐사 이하 도·부·읍공진사라는 위계화된 국가제사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⁴⁶⁾

45)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317-437쪽을 참조하여 도표로 작성하였다.

이는 조선신궁을 비롯한 각 도와 읍면이라는 말단 행정구역에까지 국가제사를 일시에 거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사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승전 기원제나 전사자 위령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1939년 식민지 조선에서 나남과 경성의 호국신사의 조영으로 이어졌다.⁴⁷⁾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전시체제하 황민화정책의 실시기관으로서의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증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1930년부터 1942년까지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증설 현황⁴⁸⁾

연도	관폐사			별격관 폐사	국폐사			기타 신사 (神社)	신사 (神社) 총수	신사 (神祠)	신직
	대사	중사	소사		대사	중사	소사				
1930년 말	1	-	-	-	-	-	-	48	49	182	48
1931년 말	1	-	-	-	-	-	-	50	51	186	48
1932년 말	1	-	-	-	-	-	-	50	51	199	48
1933년 말	1	-	-	-	-	-	-	50	51	215	48
1934년 말	1	-	-	-	-	-	-	51	52	240	57
1935년 말	1	-	-	-	-	-	-	51	52	272	62
1936년 말	1	-	-	-	-	-	2	51	54	293	71
1937년 말	1	-	-	-	-	-	4	52	57	307	86
1938년 말	1	-	-	-	-	-	4	53	58	325	89
1939년 말	2	-	-	-	-	-	4	55	61	497	95
1940년 말	2	-	-	-	-	-	4	55	61	641	103
1941년 말	2	-	-	-	-	-	6	54	62	776	116
1942년 말	2	-	-	-	-	-	6	55	63	828	120
총수	2	-	-	-	-	-	6	55	63	828	120

46) 1868년부터 1871년의 메이지정부의 신도국교화정책기에 국가신도의 기초적인 사격(社格) 시스템인 관국폐사(官國幣社)-부현사(府縣社)-향촌사(鄉村社)-무격사(無格社)가 구축되었다.

47) 안중철,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서울학연구』 42권(2011), 54쪽. 나남에 일본 제 19사단, 경성에 제 20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나남과 경성에 호국신사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48) 1942년 『통계연보』 229표 「神社, 神職及神祠」 중 신사와 신사(神社及神祠)의 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위 표7을 살펴보면,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신사(神社)는 연간 1사 미만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시체제하 물자의 부족으로 신사(神社)의 창건률이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31년 전라북도 정읍군에 아마테라스를 모신 정읍신사(井邑神社), 1934년 충청북도 충주읍에 아마테라스를 모신 충주신사(忠州神社), 1937년 전라남도 순천읍에 아마테라스를 모신 순천신사(順天神社), 1938년 강원도 강릉읍에 아마테라스를 모신 강릉신사(江陵神社), 1939년 전라남도 여수읍에 아마테라스·국혼대신(國魂大神) 등을 모신 여수신사(麗水神社)·경상북도 안동읍에 아마테라스를 모신 안동신사(安東神社)가 창건되었다.⁴⁹⁾ 다시 말해서, 1930년대 이후 신사의 창건률은 저조하였으며, 새롭게 창건된 신사(神社)의 제신은 아마테라스가 여전히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표7을 보면 신직이 1930년 48명 대비 1942년 1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0년 대비 1942년까지 약 250%의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이는 1930년 48명의 신직이 1937년 86명으로 약 180%로 증가함으로써,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후 조선인의 신사참배의 강제 및 각종 전쟁관련 기원제의 증가로 인해서 신사 의례를 주관할 신직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사회적 상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직의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1938년 조선에서의 신직 양성을 위해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⁵⁰⁾ 조선 분소가 조선신궁 궁사를 소장으로 조선신궁 경내에 설립되어⁵¹⁾ 전시체제하 신직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0년부터 1942년까지 각 도별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증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930년 및 1942년도의 『통계연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8과 같다.

49) 岩下傳四郎, 앞의 책(1941), 50쪽.

50) 황전강구소는 1882년 메이지정부가 도쿄에 설립한 신직의 중앙기관이며, 신직의 교육·양성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51) 히우라 사토코, 앞의 책(2016), 230쪽.

표8-1930년 및 1942년의 도별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증설 현황⁵²⁾

지역	1930년		1942년	
	신사(神社)	신사(神祠)	신사(神社)	신사(神祠)
경기도	4	17	5	119
충청북도	1	14	2	17
충청남도	6	21	7	32
전라북도	8	9	10	21
전라남도	4	13	9	247
경상북도	4	26	5	60
경상남도	7	22	6	39
황해도	2	11	3	133
평안남도	2	3	2	26
평안북도	4	17	5	44
강원도	1	14	2	40
함경남도	2	8	2	24
함경북도	4	7	5	26
합계	49	182	63	828

위 표8의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지역별 신사(神社)의 증설 상황을 살펴보면, 신사(神社)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으로는 전라북도가 10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가 9사, 충청남도가 7사, 경상남도가 6사, 경기도·경상북도·평안북도·함경북도가 5사, 황해도가 3사, 충청북도·평안남도·강원도·함경남도가 2사 순이었다.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지역별 신사(神祠)의 증설 상황을 살펴보면, 신사(神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가 247사로 가장 많았으며, 황해도가 133사, 경기도가 119사, 경상북도가 60사, 평안북도가 44사, 강원도가 40사, 경상남도가 39사, 함경북도·평안남도가 26사, 함경남도가 24사, 전라북도가 21사, 충청북도가 17사 순이었다. 즉, 1942년까지 신사(神社)는 전라북도가 10사, 전라남도가 9사 순으로 많았으며, 신사(神祠)는 전라남도가 247사, 황해도가 133사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는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창건되었다.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신사(神祠)가 창건된 이유는 1936년의 ‘일읍면일

52) 1930년 『통계연보』 419표 「社寺及教會」 중 신사와 신사(神社及神祠)의 수 및 1942년 『통계연보』 229표 「神社, 神職及神祠」 중 신사와 신사(神社及神祠)의 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신사'가 공포된 후, 1939년 2월 말에 도지사 신카이 하지메(新貝肇)의 지휘 하에 전라남도에서 '일면일사(一面一祠)' 정책을 급격히 대규모로 추진하여, 1945년까지 조선에서 유일하게 '일면일사'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다.⁵³⁾ 한편 위 표8의 전국의 신사(神祠)의 증설현황을 살펴보면, 1930년 182사에서 1942년 말 828사로 총 646사(78%)가 증가하였으며, 1937년에서 1938년까지 18사(2%), 1938년에서 1939년 말까지 144사(17%), 1939년에서 1940년 말까지 135사(16%), 1941년에서 1942년 말까지 52사(6%)가 증가하여 1937년부터 1942년까지 총 828사 중 349사(41%)의 신사(神祠)가 증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36년 8월 1일 '일읍면일신사'가 공포된 이후로 1917년부터 1942년까지 각 도의 읍면지역에 증설된 전체 신사(神祠) 중 41%가 급격하게 창건된 것이다.

신사(神祠)의 설립 신청자의 경우, 1936년 이전에는 일본인 신청자 67명·조선인 신청자 12명으로 일본인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1936년 '일읍면일신사' 정책 실시 이후로는 조선인 신청자가 일본인 신청자의 2배 이상을 능가하게 된다. 신청자 직업으로는 일본인의 경우 회사경영(학교조합관리자)·우편소장·교장·관공서 직원 순이었으며, 한국인의 경우 군수(읍면장)·회사경영·관공서 직원·교장 순이었다.⁵⁴⁾ 즉, 1936년 '일읍면일신사' 정책에 의해 조선인 신청자가 일본인 신청자의 2배 이상을 넘었다는 것은 신사(神祠)가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조선인 거주구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인 거주구역에서의 신사(神祠)의 신청자는 90% 이상이 읍·면장으로 신사정책에 직접적 압박 혹은 일제에 대한 충성의 과시로 신사(神祠)가 신청·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36년 이후 조선인 거주구역에 창건된 신사(神祠)는 소학교 교장이 신관(神官)을 맡고 사무소는 학교 직원 숙소에 두었으며, 청소나 의례 참석 등 신사(神祠)의 운영에 소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며⁵⁵⁾ 신사(神祠)의 행정과 학교 교육이 공조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1945년 8월 15일까지 창건된 총 866사⁵⁶⁾의 신사(神祠) 중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메이신사가 총 490사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53) 히우라 사토코, 앞의 책(2016), 235쪽.

54) 1930년 이후 『조선총독부관보』의 신사설립허가(神祠設立許可) 부문 참조.

55) 히우라 사토코, 앞의 책(2016), 211쪽, 231쪽.

56) 山口 公一, 앞의 논문(2006), 52쪽.

1929년 총 177사의 신사(神祠) 중 신메이신사가 107사였던 것에 비해 1945년 총 490사 중 신메이신사가 383사로 신메이신사가 약 3.5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볼 때,⁵⁷⁾ 1930년대 황민화정책과 1936년 ‘일읍면일신사’ 공포 후 각 도의 읍면지역에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황조신을 모신 신메이신사가 창건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신사(神祠)의 제신의 경우도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에 창건된 총 82사 중 다른 신과 같이 봉제되던 단독으로 봉제되던 아마테라스를 제신으로 봉제한 신사는 총 69사(84%)⁵⁸⁾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일병합 전후의 조선으로의 신사신도의 유입양상을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오야미와 이와시타의 문헌, 『조선총독부관보』를 참조하며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신사신도는 1678년 초량왜관의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창건 이후,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함으로써 이들 개항지나 항구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지가 형성된 곳에 각 도별 최초의 신사가 창건되기 시작했다. 1915년까지 신사(神祠)는 58사 창건되었으며, 재조일본인 인구의 50%가 집중된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17사가 창건되며 재조일본인 인구수와 신사의 창건률이 비례하였다.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의 포고 이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거류민봉제신사들을 인·허가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25년에는 식민정권의 국가제사 공간인 조선신궁이 완공되어 식민정권의 국가제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29년까지 신사(神祠)는 49사, 신사(神祠)는 177사가 창건되었으며, 신사(神祠)와 신사(神祠)의 수가 경상북도 30사, 경상남도 29사로 경상도 지방에 가장 많았다. 이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일본인 지역 유지에 의한 신사(神祠)의 창건 신청과 건립이 타 지역에

57) 신메이신사의 증설현황은 구리타(栗田英二)의 「신메이신사와 신사(神明神祠와 神祠)」(1992) 중 254-246쪽의 도표를 참조하였다(최길성 편저, 『日帝時代 한 漁村의 文化變容』上.(아세아문화사, 1992), 254-246쪽).

58) 菅 浩二, 『日帝統治下の海外神祠』(弘文堂, 2011), 340쪽.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 1915년 이후로는 재조일본인 인구수와 신사(神社)의 창건률은 비례하지 않았으며, 일본 지역 유지에 의해 기존의 신사(神社)가 창건되지 않은 지역에 신사(神祠)가 창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30년대에는 일제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전시체제하에 들어감으로써 황민화정책이 실시되었다.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천황의 제사로 재편된 국가신도 제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36년 '일도일열격사'를 실시하여 '조선신궁 이하 국폐사·도·부·읍공진사'라는 위계화된 제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신사참배를 강제하기 위해 1936년 '일읍면일신사' 정책을 실시하여 각 지방의 읍·면에까지 신사참배 기관을 증설하였다. 그 결과 전시체제하 물자의 부족으로 신사(神社)의 창건은 저조하였으나 1938년 이후 신사(神祠)의 창건률은 조선인 거주구역의 읍·면장의 주도로 소학교의 공조 하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는 전라남도에도 가장 많이 창건되었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도지사 신카이 하지메의 적극적인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정책 하에 전라남도에서만 유일하게 1945년 해방 전까지 '일면일사'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신의 봉제경향의 경우, 1910년까지 황조신 아마테라스신을 봉제한 신사는 약 47%, 고향의 수호신을 권청하거나 일본의 민중에게 인기 있는 신사의 신들을 봉제한 신사는 44%였다. 반면 1915년 「신사사원규칙」의 발표로 조선총독부가 신사의 통제권을 장악한 후로는 민중에 인기 있는 신사의 창건은 단절되었으며, 1916년부터 1929년까지 아마테라스를 봉제한 신사는 91%,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아마테라스를 봉제한 신사는 총 84%로 조선총독부가 1915년 신사의 인·허가권을 장악한 이후로 식민지 조선의 신사에 있어서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제신으로 봉제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우세하였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조선에 창건된 신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봉제한 신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황조신이 식민지 조선의 국가제사에서 조선인의 조상신으로 재탄생하며 종교를 통해 '내선일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신사의 유입양상을 조선총독부 통계자료 및 관보를 통해 분석·정리한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 신사신도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향후 식민지

종교의 문화연구의 차원에서 각 도별 신사의 유입양상 및 역할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어,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2. 단행본

최길성 편저, 『日帝時代 한 漁村의 文化變容』 上. 아세아문화사, 1992.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로서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日本電報通信社 編, 『神社大觀』. 東京: 日本電報通信社, 1940.

村上重良, 『國家神道と民衆宗教』. 東京: 吉川弘文館, 1982.

管 浩二, 『日帝統治下の海外神社』. 東京: 株式會社 弘文堂, 2011.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東京: 吉川弘文館, 2005.

岩下傳四郎, 『大陸神社大觀』. 京城府: 大陸神道聯盟, 1941.

小山文雄, 『神社と朝鮮』. 京城府: 朝鮮佛教社, 1934.

島藪進, 『國家神道と日本人』. 東京: 岩波新書, 2013.

3. 논문

김승태, 「일본 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神社問題」. 『한국사론』 16, 1987, 275-344쪽.

문혜진, 「한일병합(1910년) 이전 남산대산궁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연구」. 『郷土서울』 제83호, 2013a, 237-275쪽.

문혜진, 「일제식민지기 경성부 신사: 신사 및 제신의 시기별 성격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2013b, 369-508쪽.

문혜진, 「식민지 조선의 國幣小社에 관한 일고찰: 국폐소사의 운영 및 제의 양상을 중심으로」. 『로컬러티인문학』 15, 2016, 159-193쪽.

양홍숙, 「17세기 두모포왜관의 경관과 변화」. 『지역과 역사』 15권, 2004, 165-196쪽.

천지명, 『재한일본인 거류민단(1906-1914)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山口 公一, 「韓日併合以前における在韓日本人創建神社の性格について」. 『日韓相互認識』 제2호, 2009, 25-62쪽.

국 문 초 록

한국에 진출한 신사는 일본의 민중 신앙에 기반한 거류민봉제신사부터 일본 천황의 제사기관인 관폐사(官幣社)·국폐사(國幣社)에 이르기까지 신사의 성격과 사격(社格)이 다양하며, 시기별로 신사신도의 진출양상이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① 한일병합(1910년) 이전, ② 1911-1929년의 거류민봉제신사의 관공립화 및 국가제사시설의 완비, ③ 1930년대 이후 황민화 정책기(1931-1942년)로 그 시기를 구별하여 한국으로의 신사신도의 진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시기별·지역별 신사신도의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 이하 통계연보로 표기)』를 그 연구대상으로, 위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의 전환기에 따른 지역별 신사신도의 진출양상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할 것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해석 자료로서 일제강점기 지역 신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로는 그 시기를 1678년부터 『통계연보』가 간행된 1942년까지로 한정하고자 하며, 지역은 『통계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남도·전라북도/남도·경상북도/남도·황해도·평안북도/남도·함경북도/남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투고일 2018. 3. 22.

심사일 2018. 4. 13.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조선의 신사(Shinto shrines in Korea), 진출 양상(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of Shinto shrines), 조선총독부 통계연보(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Statistical Yearbook), 종교정책(Religion policy), 지역별 신사(Shinto shrines in various regions of Korea)

Abstracts

Diffusion of Shinto Shrines into Colonized Korea

Mun, Hea-jin

Japanese Shinto shrines introduced to Korea were various in character and rank, ranging from those built by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ased on their folk religions to those, which ancestors of Japanese emperor were venerated, such as Kampeisha (Imperial shrines) and Kokuheisha (National shrines). The period of diffusion of shinto shrines also should be classifi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iffusion of Shinto shrines in Korea over three periods: i) the pre-annexation period (up to 1910), ii) the period of placing Shinto shrines built by Japanese residents in Korea under official and public control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national veneration ceremony (1911-1929), and iii) the Japanization period (1930-1942).

Using statistics related to founding year and location of Shinto shrines as presented in the statistical yearbook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study will examine how Shinto shrines had spreaded into various regions of Korea over the three periods. In addition, documents related to shrines in various regions of Korea will be used to help interpretation of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The time scope of analysis covers from 1678 to 1942, the year when the last statistical yearbook was published. Regional range follows the classification in the statistical yearbook: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and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bukdo-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Hwanghae-do, Pyongan-bukdo and Pyongan-namdo, and Hamgyong-bukdo and Hamgyong-namdo.

